

글로벌 인증 쉬워진다... 경북도, 푸드테크 기업 지원 확대

농식품부 공모... 국비 5억 확보
윈스톱 시험·인증 체계 마련 예정
NSF 인증시험기관 기능 강화

경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도 글로벌 K-푸드테크 기업 육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5억원 을 확보했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총 10억원 규모의 국제인증 분석 장비를 확충하고, 조리 로봇 등 식품기기의 소재 평가부터 NSF 등 해외 인증까지 지원하는 윈스톱 시험·인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은 지난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식품로봇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의 후속 성과다. 기존 인증 인프라에 첨단 소재 분석 기능을 추가해 국내 푸드테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 기능을 강화하게 됐다.

경북도는 총사업비 155억원 규모의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조성 중인 식품로봇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전경.

'식품로봇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오는 7월 포항융합 기술산업지구 내 연구지원센터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 지난해 7월 NSF International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아시아 최초 NSF 인증시험기관을 개소하며 국제 인증 기반을 구축했다.

NSF 인증은 미국 상업용 식품시설 수출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국제 공인

인증이다. 기존에는 국내 기업들이 인증을 받기 위해 장비를 미국 본사로 보내야 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

하지만 NSF 인증기관 유치 이후 인증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됐고, 비용도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복합환경 기계적 특성 분석기는 실제 주방과 조리 환경을 구현해 식품로봇과 조리기기 소재의 내

구성을 정밀 평가하는 장비다. NSF 등 국제 표준 규격 시험과 직접 연계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포항 현지에서 소재 물성 평가부터 최종 인증 취득까지 전 주기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KS·K OROS 표준 개발과 국내외 인증(KCs·UL 등), 성능평가와 연계한 전주기 시험 인증 체계 구축을 위한 '푸드테크 로봇 시험인증평가센터' 기반 구축도 국가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아시아 최초 NSF 시험인증기관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기업들에 정밀한 시험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첨단 장비 확충과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경북이 글로벌 푸드테크 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낙동강하구 팜투어 개최

부산시는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환경·생태·조경 분야 전문가를 초청한 현장 팜투어를 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팜투어에는 조경진 서울대 교수, 김영민 서울시립대 교수, 최송현 부산대 교수 등 학계와 언론, 시민단체 전문가 17명이 참여한다.

첫날에는 부산역 일원에서 국가도시공원 추진 현황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논의한다. 둘째 날에는 을숙도 일원에서 야생동물 보호 현장과 생태 환경을 둘러보고 부산현대미술관과 아미산 전망대를 방문해 낙동강하구의 생태적 가치를 점검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울산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확대

울산시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들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이 기존 51개 품목에서 60개 품목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밝혔다.

추가 답례품은 가공식품 7개 품목, 공예품 1개 품목, 문화관광 1개 품목 등으로, 독창적인 디저트류와 건강 오일 등 가공식품부터 지역 내 폐활용용미술(핑크아트) 전시·체험 상품까지 선택 품을 넓혔다. 기존 농축수산물 중심에서 벗어나 기부자의 변화하는 수요와 최신 추세를 적극 반영했다.

기부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키고 지역 소상공인과 관광 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완도군

"섬 여행 반값에 하세요"

전남 완도군은 19일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섬 여행객 반값 운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청산도, 여서도, 노화도(넙도), 소안도, 보길도를 방문하는 일반 관광객으로 터미널 이용료나 차량 운임은 제외한 여행객 운임비 50%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도 31일 동안 4만1810명에게 2억 2000여만원의 운임비를 지원해 섬 관광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올해는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해 더 많은 관광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완도(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구미시

반도체부품 제조 시험장 구축

경북 구미국가1산업단지에 반도체부품 제조·검증 시험장이 들어선다.

시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400억원을 들여 구미시 공단동 국가1산단에 '반도체 장비 챔버용 소재부품 제조 및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유일 세라믹 소재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KICET)이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KITL),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 구미전자정보기술원(GERI)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구미(경북)=김준한 기자

충남도, 혁신도시 활성화 '신호탄'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 본격화
2028년까지 사업비 250억 투입

충남도가 충남혁신도시 '1호 국비 사업'인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을 본격화하며 혁신도시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사업 무산 위기를 넘고 국비를 확보하면서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충남혁신도시 사업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에 최근 착수했다고 밝혔다.

복합혁신센터는 혁신도시법에 따른 충남혁신도시 첫 국비 사업으로, 예산 보성 초등학교 인근 내포신도시 커뮤니티 부지에 조성하는 복합 공공시설이다.

센터는 부지면적 6034㎡에 이상 3층, 연면적 4100㎡ 규모로 건립하며, 총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내부에는 영유아·청소년 시설과 교육·창의 공간, 혁신도시관리본부 사무실 등이 들어선다.

도는 내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한 뒤 공사에 착수해 2028년 준공, 2029년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충남혁신도시는 2020년 10월 지정 이후 5년 넘게 공공기관 이전 등 핵심 사업이 가시화되지 못했다. 이번 복합혁신센터 사업 역시 2024년 설계비 5억 원을 확보했지만,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미지정으로 국비 교부가 부류되며 한때 무산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이에 도는 충남혁신도시가 타 혁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를 설득했고, 정부의 국토균형성장 기조와 맞물려 국비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포항시 "도심 속 자연 누려보세요"

학산공원 정식 개방

포항시가 도심 속 녹색 휴식공간으로 조성한 학산공원을 18일 시민들에게 정식 개방했다.

학산공원은 환호공원에 이어 지역 내 두 번째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된 도심공원이다.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던 부지를 대규모 복합문화공원으로 조성해 도심 녹지 확충과 생활형 문화 공간 조성 효과를 동시에 거두게 됐다.

이번 사업에는 공원 조성비 300억 원과 보상비 472억 원 등 총 772억 원이 투입됐다. 전액 민간자본으로 사업이 추진돼 시 재정 부담 없이 대규모 녹지 공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한다.

학산공원은 학산천 생태하천과 철길 숲 인근에 위치해 기존 도심 녹지축과의 연계성을 높였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녹색 생태 네트워크 역할도 기대된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포항시 학산공원 전경.

공원 내에는 너른마당과 체육센터, 궁도장, 무장애놀이터, 사계정원, 어울림마당, 오희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섰다.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생활형 휴식공간으로 꾸며졌다.

특히 공원 중심부인 너른마당에는 겨울 연못과 폭포, 잔디광장이 조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경사면 곳곳에는 꽃잔디를 심어 계절감을 더했다.

경북도, 울릉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연계

경북도가 18~19일 울릉군을 방문해 울릉도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을 위한 간담회와 민간투자사업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지난 18일 울릉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경북도 경제혁신추진단과 (사)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 울릉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경북도는 울릉군 북면 일원에 건설을 추진 중인 280실 규모의 민간 호텔·리조트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연계해 울릉도의 대표 체류형 기반시설로 육성할 계획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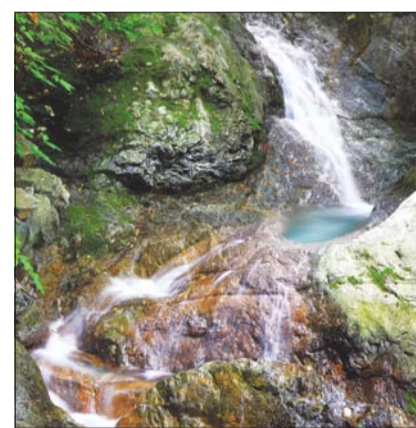
계곡·원시림 품은 영양... 피서지로 '각광'

차박·캠핑 등 성지 입소문

유독 뜨거운 것으로 예상되는 올여름, 북적이는 유명 관광지를 벗어나 진정한 '쉼'을 찾는 이들에게 영양군이 주목받고 있다. 영양은 일월산과 반변천이 빚어낸 원시 계곡과 때 묻지 않은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차박과 캠핑의 성지로 불린다. 영양의 구석구석 숨겨진 명소를 코스별로 소개한다.

영양읍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무창천이 반긴다. 대천리에서 양구리에 이르는 구간 중 화천리와 무창리는 이미 아는 사람들만 아는 피서 명당이다. 이곳에서 자리를 잡았다면 반드시 영양맹동산 풍력발전단지를 둘러야 한다. 계곡물은 없지만, 한여름에도 몸이 날아갈 듯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더위를 한순간에 잊게 해준다.

천렵의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면 반변천 상원리가 제격이다. 물이 깊어 물놀이에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골뱅이와 민물고기가 풍부해 최고의 휴양지로 손꼽힌다. 인근 곡강리는 텐트를 치기에 적합한 노자가 많아 캠핑들에게 인기가 높다.



일월산 선녀탕 모습.

일월면과 수비면 경계에 위치한 섬촌리는 반변천 곳곳에 차박지와 물놀이장이 산재해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안성맞춤이다.

더 깊은 자연을 원한다면 영양군이 자랑하는 송하천과 대신골을 추천한다. 특히 송하리와 죽파리 경계인 대신골 입구는 차박의 성지이며, 기산리 방향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텐트 하나로 원시림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인근에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영양 자작나무숲이 있어 이국적인 풍경까지 더해준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